

여수시 공무원 '불법광고물로 골머리'

시청상황실서 점심시간 활용해 올해 첫 '브라운 백미팅' 가져

LED 전자게시대 설치·민관 합동 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 나와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최근 기습을 부리고 있는 분양 광고 현수막, 상가밀집지역 전단지 무단 배포 등 각종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수시에 따르면, 31일 낮 12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과 업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운 백

미팅이 열렸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 대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모임은 인사말, 주제 발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번 모임을 주재한 문태선 단장은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서와

읍면동 직원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수 시민공감팀장이 브라운 백 취지를 설명했다. 서팀장은 "브라운 백 미팅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 간 수평적 관계에서 현안 업무를 공유·소통하는 대화의 장이다"면서 "지난 2018년부터 권오봉 시장의 제안으로 매달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위화환 광고물관리팀장은 지역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과 옥외광고물 관련법,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등을 설명했다.

정당·정치인 불법 현수막, 게릴라식 주택 분양 플래카드, 상가밀집지역 전단지 무단 배포 등을 예로 들며 불법광고물의 실태와 문제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자유 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앞다투어 나왔다. 공원과 김00 주무관은 서울시

서대문구를 예로 들며 LED 전자게시대 확충을 제안했다.

김 주무관은 "인기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려면 30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 데 이로 인해 광고업주 등이 길 가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면서 "전자 게시대를 설치하면 여러 광고물을 순환해서 홍보할 수 있고, 아간에도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과에 근무하는 김0 주무관은 부산시 연제구에서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을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김 주무관은 "민관 합동 모니터단을 구성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단속, 스마트폰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등을 하면 상생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삼일동 우0 주무관은 주민들이 불법광고물과 합법광고물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광고물 표시제를 건의했다.

우 주무관은 "광고물합회를 통해 합법광고물에 도장이나 스티커를 붙인다면 현재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고흥군, 가업을 잇는 청년 육성

청년 가업 승계로...지역경제에 활력

고흥군은 부모의 대를 이어 가업을 이릴 청년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가업승계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축산·어·소상공업 분야별 기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15명을 선정,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가업승계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보조금 비율은 높이고(80→90%) 자부담 비율은 낮춰(20→10%) 지원한다.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으로 (조)부 또는 (조)모로부터 신청자 본인이 승계 받아 영농·축산·어, 소상공 경력 5년 이내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조)부 또는 (조)모로부터 승계한 기반에 비닐하우스, ICT 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어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농·수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점포 인테리어 리모델링 및 상업 홍보품 품 제작 등이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가업승계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 심의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지난해 가업승계 청년 30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부모의 가업을 잇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 창업몰 조성', 'My Job & Future·Art Center(고흥 청년 내일 아트센터)조성',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가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청년 내일로·마을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새로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고흥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화순군, 봄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화순군은 30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활동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109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안전교육'을 했다.

이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열린 교육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의 역할과 진화 요령 실습으로 진행됐다. 또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지역 순찰과 계도 강화, 주민들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 음주와 근무지 이탈 금지 등 근무 기강 확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읍·면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 14곳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산불 소화 시설(3개소),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11대), 산불 기계화 장비 등을 100%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사전에 정비했다. 읍·면 이장회의, 반상회, 농업인 교육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산불 예방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 기차마을, 로즈 블라썸 버스킹 모집



곡성군이 오는 2월 14일 까지 삼진강기차마을로 '로즈-블라썸' 버스킹 공연팀을 공개 모집한다.

곡성군은 올해 삼진강기차마을에서 성수기철 버스킹 공연을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차마을 발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버스킹 일정을 계획하고자 공연자(팀) 모집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노래, 연주, 댄스, 거리극, 마술 등 장르에 제한이 없다. 야외에서 공연이 가능하다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연자(팀)에게는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의 '곡성 삼진강기차마을 버스킹 모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차마을팀 061-360-8644)

군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아날, 축제 등 특정된 날에만 버스킹 공연이 열려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면서 "실력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3E 프로젝트' 정책개발 나서

순천시는 2020년도 생태경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E 프로젝트(생태·교육·경제)의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고 밝혔다.

'3E 프로젝트'는 순천시 고유의 교육여건과 생태환경의 강점을 살려 지역 경제를 이끌어 특화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새로운 순천형

생태경제 모델이다.

시는 오는 2월부터 3E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정책 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각 계층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을 방침이다.

모아진 아이디어는 우선 유형별·성격별 분류작업과 정형화를

거쳐, '시민 공감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선호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가능한 제안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제안은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검증단의 검증과 보완작업을 다시 한번 거쳐 최종 확정하고 오는 9월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미래 순천 3E 정책을 대내외 공표할 예정이다.

순천시에서는 제안에서부터 검증, 확정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만든 제안 시민 실행제를 실시해 정책의 투명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2021년 민선 7기 하반기 시책부터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순천=김도현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